

# 이통사, '갤럭시S6' 보조금 인상 카드 꺼낼까

### 출시 일주일만에 내부 검토...경쟁사 3사 '눈치보기'

### 상한액까지는 인상 여지...이르면 17일께 조정할 듯

갤럭시S6 출시 1주일 만에 이통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간 눈치보기도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는 지난 10일 갤럭시S6 출시 당일 공개한 보조금을 이르면 17일께 요금제별로 소폭 조정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갤럭시S6 32기가(GB) 모델에 대해 최고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T는 같은 모델에 대해 최고 21만 1000원, LG유플러스는 최고 19만4000원의 보조금을 각각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정한 보조금 상한액 33만원까지는 3사 모두 보조금 인상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브랜드 파워가 강한 SK텔레콤은 대부분 요금제 구간에서 경쟁사보다 적은 보조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50%를 내준 상황에서 경쟁사로 풀리고 있는 번호이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책정한 KT도 일부 요금제 구간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의 협상력이 전보다 강해졌다는 평가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6만원대 요금제 구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책정했다고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경쟁사들의 보조금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통신사들은 매주 금요일 보조금을 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각사 보조금이 일제히 공개됐을 때 예상보다 격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장 대표가 '갤럭시S6'를 소개하는 모습.

차가 커서 다소 놀라는 분위기였다"며 "일주일간 실적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소폭 조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밖에 분리요금제 할인이 오는 24일부터 현행 12%에서 20%로 2배 가까이 오르는 점도 변수다. 분리요금제는 새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 개통하면 이통통신사

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분리요금제 할인율 인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4일께 보조금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청소년 30% 스마트폰 중독 '위험수위'

### 3년 연속 증가세... "공부 방해·불안감 등 부작용 경험"

### 중학생 중독률 가장 높아...말벌이가정 아이들 더 취약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10세 이상 59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3일 발표한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만 10~19세 청소년의 비율은 29.2%였다.

이는 전년(25.5%)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29.2%), 20대(19.6%), 30대(11.3%), 40대(7.9%), 50대(4.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중독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공부에 방해된다(53.4%), 스마트폰을 그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한다(51.6%),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49.6%)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29.9%로 남성

(28.6%)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중학생(33.0%)이 가장 높았고, 환경적으로 말벌이가정 청소년(30.0%)이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별 비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15.5%)과 200만원 이상인 저소득층(15.4%)에서 중독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14.2%(4561명)로 전년(11.8%) 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성인(만 20~59세)은 11.3%로 전년(8.9%)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4.3시간이었지만 중독위험군은 5.3시간이었으며 이용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40.3%), 뉴스 검색(37.2%), 온라인 게임(21.7%) 순이었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스마트폰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연구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전자파 방출량 가장 적은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메가' 선정

**갤럭시 엣지·LG G3 順**

지금까지 프랑스에 출시된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전자파 방출이 적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메가'라는 현지 조사결과가 나왔다.

IT 전문매체 씨넷(Cnet) 불어판은 최근 프랑스의 한 연구기관이 프랑스 현지에서 출시된 글로벌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해 결과 삼성의 '갤럭시 메가'가 0.142W/kg로 가장 적었다고 보도했다. 2위에 오른 스마트폰 역시 삼성의 '갤럭시 노트 엣지'로 흡수율은 0.241W/kg로 나타났다. 3위는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해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올린 G3(0.291 W/kg)였다.

지난 10일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동시 출시된 갤럭시S6엣지는 0.334W/kg로 6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갤럭시 노트4(8위)와 갤럭시알파(9위) 등 삼성 스마트폰은 최소 전자파 방출기 중 10개 가운데 무려 5개가 선정됐다.

전자파 흡수율(SAR)은 전자파가 사람의 머리 부근 조직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의미하며 단위는 W/kg로 표현한다. 국내에서 허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은 1.6W/kg으로 국제 권고기준인 2W/kg보다 엄격한 편이다.

이 매체는 "아직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스마트폰이 방출하는 전자파는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다 전자파 방출 스마트폰 순위도 함께 공개했다.

/연합뉴스



### 애플워치 공개

지난 10일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소프트웨어 매장서 한 시민이 온라인 선주문이 시작된 애플워치를 차보고 있다. 애플워치는 10일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등 9개국에서 선주문에 들어갔으며 24일부터 매장에서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 판매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연합뉴스

### 금주의 추천앱

애플워치와 갤럭시S6의 출시로 뜨거운 한 주였다. 특히 애플워치의 앱 생태계가 얼마나 조성돼 있는지도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출시 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워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CommitTo3 / 제작 : Oceanhouse Media / 애플워치**  
CommitTo3는 할 일 관리를 위한 앱이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3개의 중요한 일들을 정해놓고 마감표시를 하기 전까지 시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람을 준다. 앱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일을 분배하거나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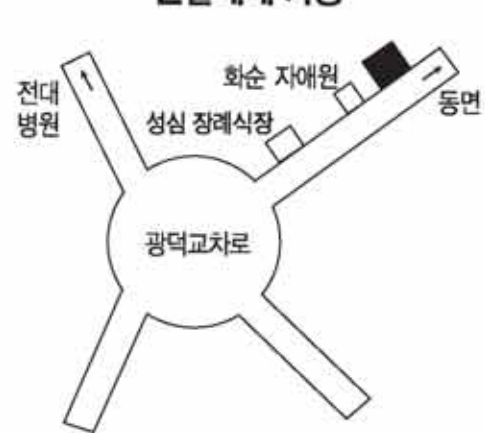
**Mint Personal Finance / 제작 : Intuit Payments Inc. / 애플워치**  
월별 지출 금액을 설정하고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는 가계부 앱이다. 지속적인 알람을 통해 지출을 관리하고 각종 그래프를 제공하여 시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Babbel / 제작 : Babbel / 애플워치**  
Babbel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도구다. 위치를 기반으로 관련된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여 암기한 단어가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준다. 가령 사용자가 공항에 있다면 'flight', 'departure' 등과 같은 단어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DESIGN ZOOZS 제공: 디자인즈스  
**ZOOZ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zs.com)

##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20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매매가 - 1억 3120만원(평당 40만원)
- 입사불 대폭할인 분할매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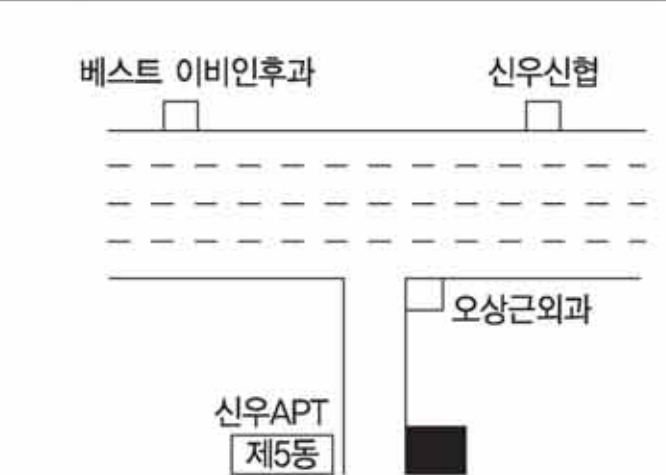


주인직매 H. 010-6833-19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 전망좋은,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1억(대출 7천만원 가능)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첫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용 1억 1천만원 포함)

##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매매



문의. 010-3605-5000 (공동중개 환영합니다)

##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4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

##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